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빌 2:1-4]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있을진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이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또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어떤 권면이나 격려나 위로가 있을 것이며 그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유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권면을 유념해야 한다.

바울은 우선 일심단합하라고 권면한다. ‘같이하여,’ ‘같은 사랑,’ ‘합하여,’ ‘한 마음’ 등 같은 뜻의 말이 네 번 반복되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강조했다. 분열은 육신의 일이며 천국의 모습이다. 분열하는 자는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교회의 일치하는 진리 안에서의 일치이다. 이단과 정통이 하나되는 것을 말하거나 교회와 세상이 하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연합운동은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들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옛날 노아 시대 홍수 심판 후의 바벨탑 운동과 같다. 형제 사랑을 강조한 요한일서도 바른 신앙과 이단을 구별하고 형제 사랑이 바른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교훈했다(요일 4:1).

사도 바울은 또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권면한다. ‘다툼’이라는 원어는 당파심 혹은 이기적 야망이라는 뜻이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경쟁심은 좋지 않다. 또 우리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받들며 이루기를 소원해야 한다. 또 사람이 겸손하려면,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자기의 자기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사람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우리는 다른 이의 약점만 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에

게 은혜로 주신 장점을 보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또 성도들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이들의 일도 돌아보라고 권면한다. 다른 이들의 일이란 다른 이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일을 가리킨다.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이타적 마음가짐이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겸손히 일치단합하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 힘쓰는 것을 봄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목회자들의 기쁨은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대로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요한도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며 그러한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말했다(요이 4: 요삼 3-4).

[5-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이 마음이 너희 속에 있게 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물로 여기지 않으셨으며(원문 직역)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들어 겸손을 교훈하였다. 예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 그의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그것을 얻으신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神性)을 믿는다. 그는 이사야 9:6에서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릴 한 아기로 출생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미가 5:2에서는 그의 근본이 상고에, 태초에인 인물로 예언되었다. 요한복음은 그의 신성을 풍성하게 증거한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되었고 고(1:1)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친히 말씀하심으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고(5:17-18),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

심으로 자신의 연대가 영원 전부터임을 암시하셨고(8:58), 또 그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고(10:30), 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셨고(14:9),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17:5). 사도 바울은 디모서 2:13에서 그를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20에서 그를 ‘참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요한계시록 1:17에 보면, 그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12-13에서도 그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은 그가 그의 신성(神性)을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그의 신적 속성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보류하셨다는 뜻이라고 본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비천한 마구간에서 사람으로 출생하셨고, 인간 부모 밑에서, 목수인 요셉의 돌봄 아래서 30년 동안 조용하게 순종하며 사셨고, 그가 전도사역을 하실 때에도 죄인들 가운데서 가난한 생활을 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이다(요 1:14). 그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겸손이다.

[9-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다. 그의 인성(人性)은 부활 전과 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는 부활하신 후 지극히 크신 신성의 영광을 받으셨다.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은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그를 주라고 고백하며 찬송을 올린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치단합하여 서로 교제하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이기적 욕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생활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에 임하여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

야 한다. 마태복음 11:29에 보면,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하나님과 한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 주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라고 교훈하셨다(마 16:24).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 산 자나 죽은 자 모두에게 다 주라고 불리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 그는 지극히 낮아지셨으나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다. 디모데후서 2:11-12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주일오후설교

문안과 송영

[계 1:4-5a]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였다. 종말 예언의 계시인 본서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아시아는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리킨다. 사도 요한은 먼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원하였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영원 자존(永遠自存)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다(출 3:14).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 보좌 앞에 일곱 영들’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 신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의 영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5:6, “[어린양의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그의 충성된 증인 되심, 그의 부활,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심을 언급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충성된 증인이셨다. ‘증인’이라는 원어(말투스)는 ‘순교자’라는 뜻도 가진다. 충성된 증인은 죽기까지 모든 진리를 증거하는 자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죽기까지 증거하신 충성된 증인이셨다. 또 그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는 만주의 주이

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원하였다. 은혜와 평안은 성도에게 참으로 복된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호의와 사랑이다.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더 잘 믿을 수 있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며 성화를 이룰 수 있다. 평안은 은혜의 결과이며 포괄적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선 마음의 평안을 가리키지만, 또한 몸의 건강과 일용할 양식과 가정적, 사회적 평안까지 포함한다. 그것은 현세의 평안뿐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평안도 포함한다.

[5b-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전통본문)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다. 죄는 인생의 근본 문제이다. 범죄한 사람은 누구나 죽으며 지옥에 던지움을 받아야 마땅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짓음을 받아야 하고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대속 사역으로 죄짓음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다.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9,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 되었다. 또 우리는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한다.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 예언의 중요한 내용이다. 예수님의 승천 시 구름이 그를 가리웠듯이 그의 재림 시에도 그는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9-11,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

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다. 또 그의 재림 때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자들도 있으나, 후회와 공포 속에 부르짖을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하리라, 아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히 있을 것을 증거한다.

성도들은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는다.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 불탈 것이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다. 그가 다시 오시면 그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 . .

‘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약적 표현이다. 구약성경의 ‘여호와’는 신약성경에서 ‘주’라고 번역되어 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시다. 시작은 창조요 끝은 심판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곧 영원자존자이시다. 그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피조물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여기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영원자존하시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주와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이 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키고 성화를 이루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 죄와 시험이 많고 슬픔과 수고로움과 고난이 많은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감사하며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로 인해 죽어야 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셨다. 주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포도즙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다(마

26:28).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들이 되었고(벧전 2:9) 담대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주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성경이 밝히 증거한 복된 소망이다. 마태복음 24:30,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22:20,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간절히 소망하자.

수요일 설교

하나님의 대답

[합 2:1-3]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내가 비난을 받을 때 내가 무어라 대답할지(KJV, NASB)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목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목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증거하셨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겨져야 하였다. 성경은 명료한 하나님 말씀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 셋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보기에 더딜 수 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박국의 예언 후 약 70년 후에 이루어졌고, 주의 재림 약속은 주께서 승천하신 지 벌써 2천년이 흘렀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왕을 가리켰다고 본다. 그는 교만한 자이다. 또 그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이라는 단어(에무나)는 ‘믿음, 신실함, 정직함’이라는 뜻이 있다. 의인은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에 순종하여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구원과 영생의 복음에 적용되었다(롬 1:17).

[5-8절] 그는 술을 즐기며 쾌활하며 술이 그를 속이므

로(NASB, NV)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무덤) 혹은 지옥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특징을 말씀하신다. 악인들은 술을 즐기며 교만하며 집에 있지 않고 안정이 없으며 욕심을 무덤이나 지옥처럼 넓히며 사망처럼 죽한 줄 모르는 자들이다. 많은 사람은 그에게 저주하며 그의 험통한 날이 언제까지 지속되겠는가고 조롱하며 말할 것이다. 그를 몰 자들이 홀연히 일어나고 그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어서 그를 노략할 것이다. 갈대아인들의 왕과 군사들이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또 그 나라의 모든 거민들에게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9-11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이(利)를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12-14절] 피로 음(邑)을 건설하며 불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 탈 것으로 불탈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준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강포와 피흘림의 죄를 많이 범한 바벨론 제국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리라.” 우리는 죄악된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술취하지 말고 이웃을 미워하거나 강포하거나 남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대로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게, 바르고 정직하게, 선하게, 신실하게,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

책값 전화: 02-334-8291. 송료 1,000~5,000원.

- 요한1,2,3서 유다서 강해. 2판. 104쪽. 1,500원.
-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강해. 2판. 169쪽. 2,000원.
- 천주교회 비평. 2판. 97쪽. 1,500원.
- 마태복음 강해. 2판. 340쪽. 3,000원.